

순천 '캐릭터' 개발 본격화... "100년 먹거리 만든다"

산업화 위해 CJ ENM과 협력
흑두루미 등 생태이미지 부각
쇼츠애니메이션·웹툰 등 제작
지역기업·창작자 상생 모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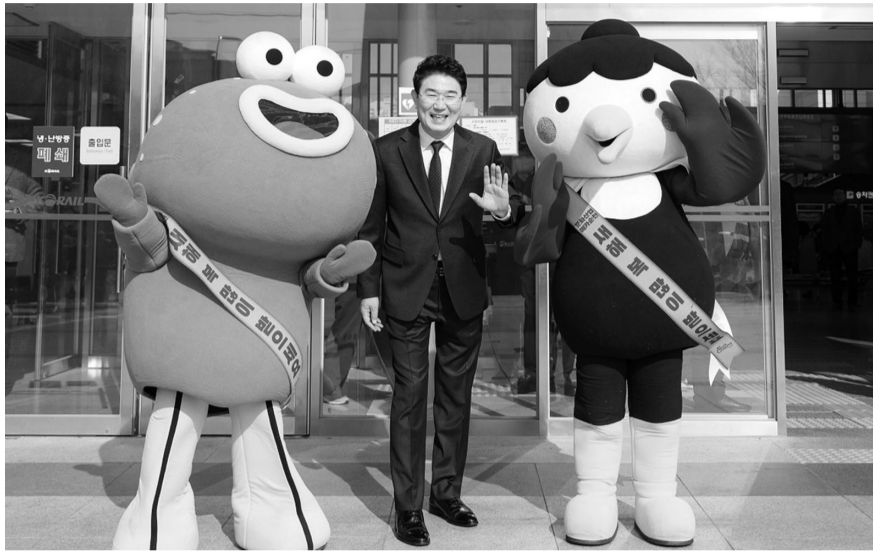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력과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캐릭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라는 미래 비전 아래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순천 만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 문화콘텐츠 기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캐릭터 IP(지식 재산권)를 개발·확장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시는 캐릭터 IP 산업화를 위해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 ENM과 협력한다. CJ ENM은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IP 사업과 애니메이션 영역에서도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이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는 '순천 캐릭터 개발' 사업으로 비주얼, 스토리, 마케팅을 모두 갖춘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다.

시와 CJ ENM은 순천의 대표 캐릭터인 '루미(흑두루미)'와 '똥이(똥똥어)'의 생태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흥미로운



지난달 노관규 순천시장이 루미, 똥이와 함께 순천역에서 귀성객 환영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스토리텔링과 함께 트렌디한 외형 변화로 순천만의 정체성과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는 전략이다.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고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CJ ENM은 개발된 캐릭터를 중심으로 쇼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계기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더해진 캐릭터는 순천시 홍보대사가 되어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계획이다.

애니메이션과 함께 인스타그램도 순천시

SNS를 통해 연재된다. 월 2회 루미·똥이가 전달하는 공감 스토리, 순천의 유용한 정보, 빅뉴스 등이 담긴 '오늘의 룬똥(루미똥이 줄임말), 순천 한 컷' 등을 통해 캐릭터의 팬층을 확보할 계획이다. 첫 화인 '흑두루미의 날'은 오는 28일에 공개된다.

또 순천 명소를 배경으로 한 PC 및 모바일 배경화면 제작, 어린이날 등 기념일과 연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 등도 준비 중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시 캐릭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반짝 매장(팝업 전시장)도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원도심 일원에서 캐릭터 팝업 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2회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올텐가)에서 본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설 계획이다.

루미·똥이를 비롯한 시 캐릭터 굿즈 개발도 동시에 이뤄진다.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와 백꾸(가방 꾸미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키링 세트, 스티커, 다이어리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 중이며, 총 30여종의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캐릭터 산업을 확장한 후에는 지역 기업 및 창작자와의 상생 모델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시 콘텐츠 자산이 될 수 있는 신규 IP 창·제작 지원으로 지역 내 창작자들을 길러내고 개발된 IP는 공공조형물 등 도시 곳곳에 적용해 살아 숨 쉬는 캐릭터를 키워낼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웹툰·애니메이션 아카데미와 연계해 지역 전문 작가들과 캐릭터 굿즈 개발 등 콘텐츠 확산에도 협력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잘 만든 효자 캐릭터가 지역 경제의 판도를 뒤집는다"며 "세계인을 감동시킬 문화콘텐츠 IP를 순천에서 키워내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구례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례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복채움 100℃ 복지'는 달린다 시즌3' 사업이 최근 광의면 월곡마을을 시작으로 출발했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복지 수요가 있는 마을을 월 2회씩 순회하며, 사회복지정보 및 건강 상식 제공, 이·미용 서비스, 이동 세탁,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주관하며 읍면 복지기동대, 자원봉사센터, 구례미용협회 등 민간기관의 협력으로 공적 지원과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20일 진행된 월곡마을 방문에서는 복지 상담 및 생활 불편 민원 접수가 진행됐으며, 복지기동대의 생활 불편 개선 사업 중 일상생활 수리·수선, 주거 개선 사업 등이 호응을 얻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군, 방역 장비 점검·무상수리 27일부터 4일간 운영

고흥군이 방역 장비 사용 전 원활한 소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역 장비 일제 점검과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과 수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4일간 권역별 지정 장소(과역면 사무소, 도화면사무소, 도양읍사무소, 군보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방역소독기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해 배터리 등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군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어려운 차량용·휴대용 방역소독기는 올해 구매한 장비로 교체한다.

군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해충 등의 조기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별 방역약품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해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선제적 방역소독으로 해충 매개성 감염병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물, 겨울상품 고별전 개최 모든 고객 대상 최대 40% 할인

고흥군이 오는 28일까지 지역 온라인 쇼핑몰 '고흥물'을 통해 '겨울상품 고별전, 굿바이 겨울'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할인 행사는 '고흥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품목은 최대 40%, 그 외의 품목은 최대 30% 할인된다. 신규 회원가입 시에는 15% 할인쿠폰과 2000포인트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고흥물'에서는 삼치회, 매생이, 굴, 새조각 등 고별 겨울상품과 할인 행사 중인 고흥 한우를 비롯해 완숙 토마토, 김, 곤드레, 백미, 매실청, 석류즙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198개 업체가 입점해 총 908여 개 품목을 판매 중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시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순천시는 27일까지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텃밭 체험'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가족사랑 텃밭 체험 참여 가족 모집

순천시는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텃밭 체험' 참여 가족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가족사랑 텃밭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4개

월간 매월 1회 토요일 진행된다.

파종, 재배, 수확 및 가공까지 다양한 텃밭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서로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역량을 갖춘 도시농업관리사들에게는

체계적인 텃밭 관리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가족사랑 텃밭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27일까지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순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suncheon.go.kr/sca/index.jsp)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 세풍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 세풍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2년간 연장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최초 지정 이후 5년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입주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진된 조치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난을 겪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내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형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최초 지정된 5년 동안 입주 기업은 지자체 전용사업 6억원, 조세감면 1억원, 수의계약 제도 2200만원 등 혜택을 받았다.

세풍산단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5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서, 약 2.42㎢ 규모에 이차전지 소재, 기계·금속, 물류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분양 초기 단계에서 입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분양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됐으

며 지정 면적은 1단계 개발구역 47만 2382㎡다.

광양경제청은 세풍산단의 발전 전략과 기업 유치 활성화 계획,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 등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특별지원지역 연장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현장 실사와 심의회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이번 연장 지정으로 세풍산단 입주 기업들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판로개척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 모집 5월부터 QR 결제 서비스 도입

장흥군은 오는 5월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모바일(QR)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QR 결제 방식으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지류형 상품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QR키트의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권 결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모바일 상품권 결제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도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흥군청 경제산업과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모집이 완료되면 군은 QR키트를 일괄 제작한 후 한국조폐공사 서포터즈가 신청 가맹점을 방문, QR키트 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고객의 편의성과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진환 기자